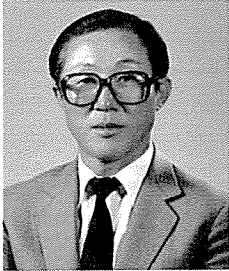


# 環太平洋공과대학을 세우자



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도 소득 1만불시대를 맞았다. 벼락부자가 되었던 일본이 한때 '돈만 벌어가는 경제적 동물'이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70년대 들어 유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유엔대학을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를 이루었다. 우리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때가 왔다. 21세기 아시아 - 태평양시대를 맞아 「環太平洋공과대학」을 세워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육성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1만불소득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1백80여개 나라중에서 국민소득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보다 뒤따라오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 셈이다. 우리도 이제 1만불소득에 걸맞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도와줄 줄 아는 세계 속의 한국이 해야 할 책임을 나눌 때가 온 것 같다.

## 개방·국제화시대 대비해야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헌도 해야 한다. 한때 일본도 돈만 벌어가는 경제적 동물이란 비난을 받았고 패쇄적이며, 이기적이고 교활한 일본인으로 매도당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십년여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우선 연구와 대학의 국제화였다.

1971년 일본 외무성과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일본 중부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엔 연구기관을 유치하였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가 그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역 및 도시개발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연구하기 위한 유엔의 이름을 빌린 실질적인 일본의 연구기관으로서 발족하였다. 일본 정부와 중부권의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아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 각국의 지역개발에 대한 현지조사와 계획의 수립을 도왔다. 현지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개발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유엔지역개발센터는 수백명의 아시아 - 태평양지역 도시 및 지역개발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중심연구기관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유엔지역개발센터는 일본의 지방적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고야대학에 일본 최초로 국제개발대학원을 설립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고야대학의 국제개발대학원은 아시아 각국의 개발행정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여러 대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다른나라 인재들을 키워주고 있다.

## 日本은 유엔대학 세워 교육개방

1976년에 들어와 유엔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를 일본에 유치하였다. 동경도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여 세계의 인재들을 일본에서 교육시킨다는 거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유엔대학교는 당초 구상하였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라기 보다는 연구기관으로 남아있지만, 최근 동경의 중심가에 해당하는 아오야마에 신축건물을 짓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일본대학의 국제화는 1970년 쥬쿠바대학의 신설로 본격화되었다. 세계를 향한 제2의 동경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쥬쿠바대학을 만든 것이다. 교수와 학생들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였고,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실 중심의 패쇄적 교육환경을 학제적이고, 정책지향

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전공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학점취득제를 도입한 것이다. 동경에 흩어져 있던 국책연구기관을 쭈쿠바에 집산화하여 쭈쿠바 연구학원 도시(筑波 研究學園都市)를 건설,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일본 문부성이 중심이 되어 외국 학생들을 위한 문부성 장학제도를 대폭 늘렸으며 특히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국립대학은 물론 기존 유명 사립대학에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가장 낙후된 지역중의 하나인 니이가타현의 한적한 시골에 국제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영어로만 강의를 하고 세계적인 교수진을 채용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일본공업은행 등의 재계의 지원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일연구소, 중동연구소, 국제경영연구소와 같은 국제연구기능을 병행시켰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유학생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도록 기업설명회와 오픈하우스를 함으로써 기업의 친일본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태국도 등록금없는 공대 설립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1967년 태국 정부는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을 설립하였다. 아시아 공과대학은 기존의 동남아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존의 공과대학원(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을 확대 개편하여 방콕 북쪽 약

40만평의 부지에 아시아공과대학을 설립하고 주로 아시아국가 출신 공학도를 교육하는 대학으로 시작하였다. 박사, 석사, 디플로마과정을 포함하여 약 7백명의 학생과 2백명의 교수를 갖추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태국인 30%, 외국인 70%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데 태국정부보조금과 아시아 각국의 기금출연, 국제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전원이 캠퍼스내 기숙사나 학생전용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며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아시아의 명문 공과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중 일본 유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수중에서도 일본인 교수가 다수이다.

일본이 정부출연국으로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일본 교수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다. 동남아에서 아시아공과대학 출신 인맥은 정부와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공과대학에 매년 얼마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한해 2~3명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으나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국제연구기관의 한국 유치 및 대학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외국대학과의 자매관계를 맺는다는가 극히 제한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상징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영어권에 속하지 않는 나라여서 외국 유학생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도 이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 학생들을 교육시킬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國際化교육 절실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대학을 만들 때가 되었다.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대비하고 친한적(親韓的) 인맥구성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인재를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킬 때가 된 것이다.

미국의 폴브라이트재단, 영국의 브리티쉬 카운실은 물론 독일의 데아데프로그래프나 일본의 문부성 장학제도와 같은 국가적인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영어로 강의하고 외국인 교수를 전임으로 채용하며 외국 학생들이 다수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수인 대학을 건설할만한 때가 되었다.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다른 나라의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제품과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너무 경제적인 이기주의에 치우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해외 시장 개척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친한(親韓)인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새로 설립된 가칭 환태평양공과대학에는 정규학위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단기기술훈련프로그램도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연간 몇천명의 해외진출기업의 외국인 기술훈련기능도 병행시켜 나간다면 명실공히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㉔